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제 효봉*

<次例>

- I. 들어가며
- II.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
- III.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 IV.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호칭어 교육 방안
- V. 마치며

I. 들어가며

최근 외국어교육이론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의 4가지 기술을 습득해야 뿐만 아니라 목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어교육계에서도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경숙, 2008: 2). 현재 다문화교육과 문화 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학이 한국어교육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 역시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위치한다. 한편 문화적 함의가 풍부한 호칭어 역시 한국 문화 교수항목으로 선정되었다.¹⁾ 한국어의 호칭어는 그 수가 많을 뿐만

* 북경어인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1) 조향록(2004: 198-199)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도입해야 하는 한국어 문화 교육 용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언어 자체: 문자/형태/통사/의미(한국어의 문자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특성) ② 문화어구: 호칭어/지칭어/색채어/감정

아니라²⁾ 독특한 사용방식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항목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전혜영, 2005: 121).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호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호칭어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길문기, 물건 사기 등 특정한 공공 상황에서의 호칭의 특징과 한국어 교육적 적용을 시도한 연구(이선희, 2002), '아줌마·아가씨·언니' 등의 친족칭 일부가 사회칭으로 보편화, 토착화된 현상을 실증적으로 다룬 논의(한윤진, 200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청자 대우 양상과 호칭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언경, 2003) 등이 있다(이윤진, 2006: 289). 또한 강영(2006)에서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관계지향적 대인관(關係指向的 待人觀)' 등이 호칭어, 인칭대명사 사용 등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윤진(2006)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어 호칭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살피고 한국어 교육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호칭어의 의미와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 호칭어 교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호칭어 선택 규칙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호칭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저자 본인도 인정하듯이 연구는 호칭어 교수시의 유의점만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한편 전혜영(2005)은 호칭어 교육을

어/어원어 등 ③ 문화어구2: 인사말/속담/수수께끼/고사성어/은어 등 ④ 언어예절 ⑤ 언어와 사고방식 ⑥ 언어의 산물: 문학작품/광고 등 ⑦ 방언 ⑧ 이름 ⑨ 비언어적/반언어적 의사소통 ⑩ 매체와 언어 ⑪ 언어와 사회1: 의식주, 관념과 가치관 등 ⑫ 언어와 사회2: 역사/정치/경제/제도/예술 등 한국인이 성취한 문물관련 어휘와 표현.
2) 한갑수(1989)에 의하면 한국어의 호칭어 수는 부름말과 가리킴말을 합쳐서 약 1200개가 있다고 한다(전혜영, 2006: 128).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실제 수업에서 운용할 만한 과제를 1) 문화적 의미 이해를 위한 과제, 2) 호칭어 형태와 사용방식 익히기 과제, 3) 호칭어 활용을 위한 활동 과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또한 과제 유형을 총 9가지로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호칭어 교육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 역시 그 자체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각 과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불과 몇 줄 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실제 한국어 호칭어 사용능력 신장에 목적을 두고 기능적 수업 유형, 즉 듣기교육과 결합시켜 국가별 학습자를 고려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교육 현장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호칭어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어 자료를 위주로 한 읽기 교육이나 쓰기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도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호칭어는 같은 대화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³⁾ 같은 상황의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대화자간의 친근감,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호칭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호칭어의 선택은 대화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전략적 호칭의 사용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이윤진, 2006: 291). 이런動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호칭어는 단순히 하나의 문장 차원에서 기술되거나 설명되는 것보다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situation)을 포함한 담

3) 실제 대화에서는 호칭어가 고정되지 않고 담화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되므로, 동일한 대화에서도 화자가 선택한 처음의 호칭어가 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호칭어가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수 사이의 대화라고 할 때, 사적인 대화에서는 '영수야'로도 가능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김 선생' 또는 '김 교수님' 등으로 바뀌게 마련이다(전혜영, 2005: 128).

화(discourse) 차원에서 기술되거나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면서 복잡한 상황과 인간관계의 변화를 담은 장면을 보여줄 수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리즈로 이루어진 드라마를 상황과 대화 자간의 친근감의 변화에 따라 동적인 호칭어 사용을 보여줄 수는 교육 자료를 통해 듣기 교육을⁴⁾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호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테이프나 영상 자료를 틀어주지 않고, 교사가 강의를 통해 해당 호칭어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습자가 호칭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칭어의 경우, 다양한 대화 장면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호칭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은 해당 호칭어를 포함한 대화 상황 전체를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생활의生生한 담화 재료의 구축과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제 활동의 제시가 요구된다.

II.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

호칭어(terms of address)에 대한 개념 정의는 서정수(1984), 박갑수(1989), 정재도(1989), 김혜숙(1991), 이선화(2002), 유송영(1998) 등 학자들에 따라 그 표현이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그들의 관점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칭어를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4) 여기서의 듣기 교육은 커리큘럼에 듣기가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와 통합형 교육에서의 듣기 교육 부분을 포함한다.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words), ‘어구’(phrases), 또는 ‘표현들’(expressions)”로 정의하고자 한다(왕한석, 2005: 17). 호칭어를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 호칭어는 먼저 지칭어(terms of reference)와 구분되어야 된다. 지칭어는 화자에 의해 말해지는 대상(즉 지칭자[referent])을 화자가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하여 화자가 대화 중 가리켜 일컫는 대상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는 명료히 구분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켜 부르는 표현으로 빈도 높게 쓰이는 ‘저기요’ 같은 ‘호출어(commonses)’ 등을 ‘호칭어’의 하나로서 포함시켜 함께 다룰 것이다.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는 박갑수(1989), 이익섭(1994), 박선미(1995), 이선희(2002), 한윤정(2003), 박정운(2005), 이언경(2005) 등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박정운(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을 바탕으로 호칭어의 구조적 합리성보다는 실제적인 담화 상황과 한국어 호칭어의 효과적인 학습을 고려하여 더욱 세부적인 분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정운(2005)에서는 1) 이름 호칭어 유형, 2) 직함 호칭어 유형, 3) 친족어 호칭어 유형, 4) 대명사 호칭어 유형, 5) 통칭적 호칭어 유형,⁵⁾ 6) 기타 호칭어 유형(별명 호칭어, 호(號)를 통한 호칭어, ‘여보세요’류 호칭어, 지역명을 이용한 호칭어), 7) 영형 호칭어 유형, 8) 친근 호칭형의 전이라는 8가지 호칭어의 유형과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여덟 가지 호칭어 유형 중에서 3번인 친족호칭어가 친족 간에 사용되는 경우, 친족이 아닌 경우, 그리고 아이를 매개체로 호칭하는 경우 등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실제 교육을 실시할 때, 더 세부적인 분류를 가지고 교육시

5) 이것은 다시 직함호칭어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호칭어, 친족어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호칭어, 그리고 청자의 외관상 보이는 나이에 근거한 호칭어 3가지로 나뉜다.

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3번인 친족호칭어와 5번의 통칭적 호칭어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인 친족어의 일반화 현상을 종합시켜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기로 한다. 즉 친족 간에 사용되는 일반 친족호칭어, 친족어가 일반화되어 사회호칭어로 사용되는 의사친족호칭어 (fictive kinship terms),⁶⁾ 그리고 상대방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아이 이름을 부르고 아이와의 관계를 부르는 종자명제(從子名制)⁷⁾이다. 한편 6번인 기타 호칭어 유형 중에서 호(號) 호칭어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호칭어 유형이었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호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號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용되고 있

- 6) 친족호칭어가 사회호칭어로 차용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범화(汎化)'라고 하는데 (고육양, 2007: 76), 친족호칭의 허구적 용법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도은진, 2000: 1). 이런 호칭어를 '의사친척호칭(fictive kinship terms)'이라고도 하는데(왕한석, 2005: 100), 전형적으로 '아주머니/아줌마, 아저씨, 언니,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윤진(2006)에 따르면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과 같은 적극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호칭표현이 "...언니, 어머니..." 등이 있다. 이렇게 친족호칭을 일반호칭처럼 사용하여 상대를 부름으로써 상대와 거리감을 없애고 쉽게 다가가려는 화자의 의도와 전략이 때로는 성공하여 물건팔기가 쉽게 성사되기도 한다(이윤진, 2006: 298).
- 7) 從子名制란 '從子名호칭'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자녀이름+아버지(어머니)', '자녀이름+아빠(엄마)'와 '자녀이름+할아버지(할머니)'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문무영은 '視點 移動적인 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친족 간의 친족어 지칭에서 자기중심적이어야 할 視點을 相對나 第三者에게로 移動시켜 표현하는 특이한 용법이다. 第三의 친족을 他稱하는 경우, 청자가 화자나 지칭대상보다 손아래이면 그 지칭의 시점이 청자 중심으로 옮겨진다"(문무영, 1982: 35-36). 老父母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아들과 딸을 '아범', '어멈' 하고 부르는 것도 從子名制의 한 형태다(이광규, 1992: 205). 한편 왕한석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제3자(매개체)가 있어 그러한 매개체와 청자와의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호칭어로 사용되는 '매개 친족 호칭어' 유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다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화자가 자신을 매개체와 동일시하여 매개체로부터의 청자의 친족어를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식이 생겼을 경우 시동생을 삼촌으로 부르는 것이 그 예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청자 집안의 대표적인 아이로부터 청자에게로의 친족어를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철호 엄마'나 '철호 할머니' 등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왕한석, 2005: 81).

다. 별명 호칭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자가 대부분 성인임을 감안하면 사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별명호칭어, 호(號) 호칭어, 영형 호칭어를 본고의 중점적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번인 친근 호칭형의 전이도 엄격한 의미에서의 호칭어 유형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담화 상황과 한국어 학습적 가치를 고려해서 다음 9가지의 호칭어 분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① 이름 호칭어: 김용집 씨, 김용집 군, 용집 씨, 용집아 등.
- ② 직함 호칭어: 교수님, 부장님, 김부장님, 김용집 부장 등.
- ③ 일반 친족 호칭어: 아빠, 엄마, 언니, 누나, 형, 삼촌 등.
- ④ 대명사 호칭어⁸⁾: 너, 자네, 자기, 당신, 그대, 여러분 등.
- ⑤ 통칭적 호칭어: 선생님, 사모님, 학생, 총각, 젊은이 등.
- ⑥ 의사 친족 호칭어: 아저씨, 아줌마, 언니, 할머니 등.
- ⑦ 감탄사형 호칭어: 여보세요, 여보게, 이봐요 등.
- ⑧ 종자명제(從子名制): 철호 엄마, 철호 아빠, 삼촌, 고모 등.
- ⑨ 지역명제(地域名制)⁹⁾: 삼성동 사모님, 전주 이모, [친정 지명] 아버지¹⁰⁾ 등.

-
- 8) 대명사를 호칭어로 삼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 2인칭 대명사가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의해 필자는 2인칭 대명사가 호칭어의 유형 중의 하나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여러 등급으로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으며, 또 이렇게 세분되어 있으면서도 이들 대명사의 어느 것으로도 호칭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대명사 하나하나의 용법이 아주 까다롭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순수 문법적인 관점과 화용적인 관점 모두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와 같은 사정에 연유한다. 필자는 문법적 기준 또는 화용적 기준에 의거하여 호칭어로 가장 널리 쓰이는 2인칭 대명사를 '너, 당신, 그대, 자네, 자기, 여러분'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졸고(2007)를 참고하라.
 - 9) 종자명제와 지역명제는 한국 사회에서 친족 사이는 물론 비친족 간에도 많이 사용되는 관습이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실용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첫째로 성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기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적절하며, 그

III.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이상 언급한 호칭어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에 대한 학습이 현실적으로 특정한 단계에서 또는 일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호칭어 유형이 교육 내용으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위계화하여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재와 교수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재에서 제시된 호칭어의 형태

교재에 호칭어가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실제 수업에서도 이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어교재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통합 교재의 호칭어 제시 상황을 살펴보고, 듣기 교재에서 나온 호칭어를 유형별로 다루고자 한다.

1) 통합 교재

전혜영(2005)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교재의 호칭어 형태들을 조사하였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¹⁾

러므로 둘째, 동일한 친족명칭에 의해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이고 그들을 구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김성철, 2005: 134).

10) 남편이나 시댁 쪽 사람에게 자기의 아버지(어머니)를 지칭할 때는 '[친정 지명]아버지(어머니)'라 말하기도 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05: 14).

11) 전혜영(2005)에서 호칭어를 유형별로 조사하기 전에 한국어의 호칭어를 1) 친족호

① 이름 호칭어의 경우

교재	제시된 형태들	수/전체수
A	영수 씨, 월슨 씨 등(11) 지연아, 나래야 등(7)	18/30
B	수미 씨, 앤버트 씨 등(12) 이성민 씨(1), 영진아, 철수야 등(11)	24/54
C	미선 씨, 존슨 씨 등(4) 은영아, 영희야 등(7) 수경이(1)	12/34

② 친족 호칭어의 경우

교재	제시된 형태들	수/전체수
A	어머니, 엄마,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5/30
B	엄마, 어머니, 아버지, 아빠,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형, 언니, 누나, 형부, 칠수어머니, 미혜어머니, 팔복이삼촌, 뜰이엄마	16/54
C	엄마, 어머니, 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할머니, 오빠, 누나, 누님, 언니, 순이엄마	12/34

③ 직함 호칭어의 경우

교재	제시된 형태들	수/전체수
A	선생님	1/30
B	선생님, 이 선생님, 부장님, 신 대리, 윤통장님	5/54
C	선생님, 김 선생, 김 선생님, 이 교수님, 김 교수, 존슨 선생, 사모님	7/34

④ 일반 명사형 호칭어의 경우

교재	제시된 형태들	수/전체수
A	여러분, 이놈	2/30
B	여러분, 손님, 새댁, 인석들아, 이사람아, 임마	6/54
C	박영순 손님, 부인	2/34

칭어, 2) 이름호칭어, 3) 직함호칭어, 4) 일반명사형 호칭어, 5) 감탄사형 호칭어, 6) 외래어형 호칭어, 7) 기타 호칭어라는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⑤ 감탄사형 호칭어의 경우

교재	제시된 형태들	수/전체수
A	여보세요, 여보, 애들아, 애	4/30
B	여보, 이봐요, 애	3/54
C	여보세요, 여보, 애들아, 애, 여보게	5/34

2) 듣기 교재

우선 듣기 교재의 경우, 통합 교재처럼 초급, 중급, 고급 등 여러 권으로 개발된 교재가 없다는 것이 듣기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듣기 교재가 모두 한 권 밖에 없는 것에 비해 연세대 중급 듣기 교재는 중급Ⅰ듣기와 중급Ⅱ듣기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재까지 출판된 한국어 듣기 교재 중에서 고급 듣기 교재가 없다는 사실이다.¹²⁾

따라서 통합교재처럼 초급부터 고급까지 시리즈로 되어 있는 교재에서 제기된 호칭어 형태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급 듣기교재와 중급 듣기교재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12)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듣기 교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봉자·최정순·지현숙(2005),『한국언어문화듣기집』, 도서출판 하우.

이희경 외(2006),『한달완성 한국어 중급 듣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오미라 외(1998),『Exciting Korean』,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오미라 외(2005),『Exciting Korean Listening』, 문진미디어.

조인정 외(1995),『Active Listening』, 한림출판사.

한국어세계화재단(2007),『초급 한국어 듣기』, 한림출판사.

조현선 외(2008),『한달완성 한국어 중급Ⅰ 듣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희경 외(2006)와 조현선 외(2008)는 동일한 명칭의 I, II로 나와 있지만, 교재의 구성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호칭어 등의 사용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교재를 서로 독립된 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초급 교재의 조사 대상으로 조인정 외(1995)와 한국어세계화재단(2007)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제시된 호칭어의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인정 외(1995)의 경우에는 총 10가지 호칭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직함호칭어인 '선생님'을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9가지 호칭어는 전부 이름 호칭어이었다. 또한 한국어세계화재단(2007)의 경우에는 총 17가지 호칭어가 제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직함 호칭어인 '선생님', 감탄사형 호칭어인 '저기요'와 의사 친족 호칭어인 '아저씨'를 제외한 나머지 14가지는 모두 이름 호칭어로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급 교재의 조사 대상으로는 백봉자 외(2005), 이희경 외(2006), 조현선 외(2008)의 세 가지를 선정했다. 다음은 본고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 중급 교재에 실린 호칭어의 형태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호칭어 유형	백봉자 외(2005)	이희경 외(2006)	조현선 외(2008)
이름 호칭어	남수 씨, 수지 씨, 미경 씨 등	박민우 씨, 김미선 씨, 미선 씨 등	요시다 씨, 리처드 씨, 하이 평 씨, 세리야 등
직함 호칭어	*	김 간호사, 선생님, 교수님	선생님, 김진우 팀장, 부장님
일반 친족 호칭어	아버지, 큰아버지	*	어머니, 누나, 오빠, 엄마, 여보 ¹³⁾ , 아빠, 할아버지, 큰 어머니
대명사 호칭어	너, 여러분	너, 여러분	너, 당신, 여러분, 회원 여러분
통칭적 호칭어	손님	손님	선배, 손님, 고객님, 선생님
의사 친척 호칭어	아줌마	아저씨, 아주머니	아저씨, 아줌마
감탄사형 호칭어 ^[14]	*	*	*
종자 명제	*	*	*
지역 명제	*	*	*

이상의 초급 및 중급 교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재에 실린 종류별 호칭어의 수와 비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재	이름 호칭 어	직함 호칭 어	일반 친족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통칭적 호칭어	의사 친족 호칭어	감탄사 형 호칭어	종자 명제	지역 명제	전 체 수
조인정 외 (1995)	90% (9)	10% (1)								10
세계화재 단(2007)	82.3% (14)	5.9% (1)				5.9% (1)	5.9% (1)			17
백봉자 외 (2005)	50% (6)		16.7% (2)	16.7% (2)	8.3% (1)	8.3% (1)				12
이희경 외 (2006)	46.7% (7)	20% (3)		13.3% (2)	6.7% (1)	13.3% (2)				15
조현선 외 (2008)	32.3% (10)	9.7% (3)	25.8% (8)	12.9% (4)	12.9% (4)	6.5% (2)				31

*() 안은 해당 호칭어의 수이고, 백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이상에서 제시되듯이 듣기 교육은 호칭어 교육의 유효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교재에서 제시된 호칭어 형태는 절대적으로 그 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① '저기요', '여기요' 등 감탄사형 호칭어가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여보세요', '이봐요', '여보게' 등 감탄사형 호칭어는 중급 단계의 듣기 교육 내용으로, 고급 단계의 말하기 교육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 13) '여보'를 감탄사형 호칭어로 다루는 설도 있지만 본고에서 부부 사이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용법이므로 친족호칭어를 다루기로 한다.
 - 14) 여기서 상대방 앞에서 부르는 용어가 아닌 전화할 때 사용하는 '여보세요'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② ‘철호 아빠’, ‘철호 엄마’와 같은 호칭어의 종자 명제적 용법은 널리 쓰이는 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교재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③ 의사 친족 호칭어는 각 교재에 한두 개 정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의사친족 호칭어의 사용 빈도와 인간관계 유지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 성인 여성끼리도 사용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회호칭어인 ‘언니’를 다루는 교재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¹⁵⁾ 적어도 중급 단계 교재에서는 ‘언니’, ‘오빠’, ‘형’, ‘누나(누님)’, ‘어머니(어머님)’등 사회호칭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용법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고급 단계 교재에서는 여자 식당 종업원에게 부르는 ‘이모(이모야)’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용법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④ 대명사 호칭어에 관해서 백봉자 외(2005)와 이희경 외(2006)에서는 ‘너’와 ‘여러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현선(2008)에서는 부부간에 쓰이는 ‘당신’과 ‘회원 여러분’ 등 두 가지 용법을 추가하고 있다. 다른 언어와 다르게 한국어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실제 교수할 때 중·고급으로 갈수록 이러한 2인칭 대명사들의 화용론적 특징 등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요구된다. 또한 젊은 층 애인 사이에 많이 쓰이는 ‘자기’는 중급 단계에서 다뤄야 하고, ‘자네’와 여성끼리 쓰이는 ‘자기’¹⁶⁾ 등 용법도 고급 단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

15) 황보나영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여자 대학생들이 나이가 많은 여자 선배에게 친한 관계라면 94.5~97.3%가 ‘언니’라고 부르고, 친하지 않은 경우에도 82.2~84.6%는 ‘언니’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동갑이나 나이 어린 선배에게도 친밀도와 상관없이 50% 이상이 ‘언니’라고 부른다. 한편, 중국 대학생들의 경우 선배에게 ‘선배’ 또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중국 대학생들에게 친족어를 호칭하는 사용하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제효봉, 2008: 118).

16) 연상의 여성 화자가 연하의 여성청자를 부를 때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 경향이 늘

⑤ 통칭적 호칭어는 모든 교재를 합쳐서 ‘손님’, ‘선생님’, ‘선배’, ‘고객님’ 등 비교적 단순한 양상이 보인다. 적어도 초·중급 정도는 ‘학생’, ‘애(애들아)’, ‘사장님’, ‘사모님’ 등을 알아야 되고, 중·고급 정도는 ‘아가씨’, ‘총각’, ‘어르신’ 등을 알아야 된다고 본다.

⑥ 지역 명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분당 어머니’, ‘수원 택’ 같은 지역 명제적 용법도 실제 어느 정도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함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단계의 교육 내용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⑦ 이름 호칭어는 제일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호칭어의 사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름+님’이라는 용법은 병원 등 서비스 장소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⁷⁾ 하지만 ‘이름+님’ 형 호

고 있다. 원인에 대해서 박정운·서채영(1999: 155)에서 “자기”를 제외한 국어 2인칭 대명사들의 체계에서는 여성들은 ‘너’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2인칭 대명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신’이 2인칭 대명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남성들 사이에서 쓰이는 ‘자네’에 해당하는 여성들 사이의 2인칭 대명사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2인칭 대명사 체계의 빈자리를 최근에 발달한 ‘자기’가 메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 17) 의존명사로서의 ‘님’이 통신 화자의 이름이나 통신 별명 등에 따라 쓰임으로써 높임 기능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185.96님’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숫자에 ‘님’을 덧붙여 쓴 것이다. ‘행자님’은 ‘행자’라는 새말에 접미사 기능의 ‘-님’이 결합된 것이며, ‘그녀님’은 대명사 ‘그녀’에 ‘-님’이 결합되어 높임 기능을 갖는다. ‘여러님’은 2인칭 복수의 대명사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통신언어에서 ‘님’이 두루 높임 기능을 지니며, 다양한 대상 인물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님’이 두루 높임 기능을 지닌다는 말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지위 등 ‘힘’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쓰는 형식이라는 뜻이다(이정복, 2005: 289-290).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 ‘님’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한국의 제30회 청룡상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심사위원들을 ‘조혜정 교수님’, ‘한지승 감독님’, ‘이웅진 국장님’ 등 직장 호칭 대신에 ‘이름+님’형인 ‘조혜정님’, ‘한지승님’, ‘이웅진님...’라고 소개했다.

칭어를 제시한 교재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2. 호칭어 교수의 방법

호칭어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에 대한 교수·학습을 특정한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진행시키는 것이 어려운 만큼 단순한 교수 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현재 실제 한국어교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설명

교재에서 또는 테이프 등 듣기 자료에서 제시되는 호칭어에 대한 교사의 간단한 설명 위주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빠'는 화자가 자기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인다.

2) 확장 설명

제시된 호칭어뿐만 아니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호칭어를 두세 가지 더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매끼리의 대화에서 '언니'라는 호칭어가 나오는 데 사회호칭어로 사용되는 '언니'의 사용법으로 학교에서 여자 선 후배 간에 '언니'라고 부르는 상황과 서비스 장소에서 젊은 여성에 대해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3) 유형별 정리

호칭어를 어느 정도 접촉시킨 뒤 중급 단계에서 이름 호칭어, 친족호칭어, 직함호칭어 등 같은 유형에 속하는 호칭어를 정리하면서, 배운 형태들에 대한 확인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 고급단계에서는 전체적 유형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이름 호칭어 같은 경우 '최용철 님-최용철 씨-용철 씨-최 씨-최용철 군-최 군-용철 군-최용철-용철아'와 같이 각 호칭어의 어감과 쓰임의 차이에 대한 설명한다.

4) 통사적 분석

제시된 호칭어의 사용을 문장의 차원에서 교육할 때 통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호칭어는 청자대우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호응시켜 사용해야 된다는 통사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존대 호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존대의 종결어미를 호응시키고, 비존대 호칭어를 썼을 경우에는 이에 맞춰 비존대의 종결어미를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호칭어는 어휘 차원에서 분석해서는 안 되고, 대우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해야만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실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혜영, 2005: 127).

5) 화용적 분석

그리고 보다 더 넓게 담화의 차원에서 호칭어 교육을 고려한다면 화용적 분석도 필요하다. 실제 대화에서는 호칭어가 고정되지 않고 담화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되므로, 동일한 대화에서도 화자가 선택한 처음의 호칭어가 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호칭어가 전환될 수 있다.

6) 문화적 분석

문화적 분석을 활용적 분석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호칭어가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언어 현상임을 이해시킴으로써 학습능률면에서도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는 고려에서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호칭어는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상하의 서열관계로 보고 그에 대한 행동윤리를 규정하는 유교문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친족호칭어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통해 혈연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해 온 일가(一家) 중심의 문화를 읽을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족호칭어를 확대하여 사회호칭어로 쓰는 것을 가족의식의 확대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한다(전혜영, 2005: 128).

7) 비교문화적 분석

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또는 한국에서 언어권별 요소를 고려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비교문화적 분석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중국인 및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나 중국어로 한국 호칭어와 중국 호칭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다. 한국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그러한 비교문화적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3. 호칭어 교수의 문제점

1) 호칭어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을 위한 학문적 이론 토대가 부족하다.

앞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수 방법의 대략적인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호칭어 교수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충분한 이론적 토대, 특히 통사적·화용적·문화적·비교문화적 분석에 필요한 한국어 호칭어 사용에 관한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호칭어에 대한 화용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즉 각 유형의 호칭어에 관한 화용적 연구와 개별 호칭어에 대하여 화용적인 접근을 취하는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호칭어에 대한 통사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상관성을 다룬 유동석(1990)과 박영순(1993),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화제와 호칭의 공기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 박선미(1995) 등이 있다(전혜영, 2005: 127). 그리고 유송영(1998)에서는 청자 호칭·지칭어와 청자 대우 어미의 공기 관계를 '담화 상황'(situation)과 관련시킨다.

한편, 호칭어에 관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국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호칭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어 호칭어를 넘어서 다른 나라의 호칭어를 대비하는 비교언어문화적 연구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 호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매체 활용이 부족하다.

일상 회화를 다루는 녹음테이프 등의 청각 매체, 또는 영화 비디오테이프나 TV 녹화 테이프 등의 시청각 매체 활용을 통해서 호칭어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하나의 문장 차원에서 기술되거나 설명되는 것보다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situation)을 포함하는 담화(discourse) 차원에서 기술되거나 설명해야 하는 호칭어는 담화이나 상황을 더 정확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다매체를 활용한 듣기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기대될 수 있다. 하지만 호칭어 이해와 표현 능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다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 원인은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앞에 교재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현재까지 출간된 교재는 호칭어를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다루고 있다. 교재를 바탕으로 녹음된 녹음테이프도 물론 이와 같은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들이 호칭어의 실제 내용과 변화 양상을 담고 있는 좋은 교육 자료이지만 호칭어 관련 내용이 너무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호칭어 교육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의 전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교재, 특히 듣기 교재에 호칭어 관련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이나 호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테이프나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의 다매체 자료도 초·중·고급, 즉 단계별 수준을 고려한 개발 방식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매체들의 목록과 활용 방안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 호칭어 교육을 위한 과제 활동이 부족하다.

과제는 학습자에게 형식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게 하면서 목표어를 이해하고 조작하고 표현하거나 목표어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조수진, 2007: 27). ‘과제중심적 교수’가 계속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간된 교재에서 제시되는 과제 활동을 살펴보면, 통합교재에서나 듣기교재에서나 호칭어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과제 활동을 찾

아보기가 힘들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의 과제 유형 개발은 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기능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독립적인 호칭어 과제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칭어 교육을 위한 전문 과제활동의 개발 등과 같이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연구 작업들의 축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세부적 연구 작업의 성과가 교재 편찬이나 교사의 실제 교수 수행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호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 유형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IV.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호칭어 교육 방안

1. 기존 교재의 수정 및 보완

앞에서 기존 듣기교재에서 제시된 호칭어 형태에 대한 분석한 결과로 7가지 한계점을 제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존 담화자료의 수정과 새로운 담화자료의 보충이 필요하다.

1) 기존 담화자료의 수정

현재 한국어 교재의 듣기 텍스트는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정성¹⁸⁾을 갖춘 텍스트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현재 듣기 텍스트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단편적이고 현실과

18) 진정성이란 특정한 언어 학습 교육 과정을 위해 재단되지 않고, 원어민에 의해 사용된 언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박민신, 2008: 5).

괴리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칭어만 국한시켜서 말하자면 필자가 조사한 교재에서 제시된 담화자료는 호칭어가 하나도 없이 진행되는 대화가 많이 나와 있다. 사실 호칭어를 적당하게 쓰면 더 한국인 화자가 실제로 하는 일상적인 대화에 가깝기도 하며 호칭어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듣기 텍스트의 진정성을 살리면서 듣기 교재의 호칭어 제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 작업의 예시가 요구된다.

여자: 이쪽에 있는 머리핀은 얼마예요?

점원: 아래에 있는 건 다 7000원씩이고 위에 있는 건 10000원씩이에요.

여자: 예쁜 게 많네요. 이거랑 이거 둘 다 마음에 들어서 어느 걸 사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점원: 둘 다 하세요. 다 잘 어울려요.

여자: 두 개 모두 살 테니까 14000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점원: 그렇게 싸게 드리면 우리도 남는 게 없어요. 1000원만 깎아 드릴게요.
(연세대 중급 I 듣기, 10과)

우선 기존의 내용에다가 호칭어만 첨가하는 방식으로 수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방안 2와 같이 대화 내용을 수정하면서 호칭어를 첨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수정방안 1)

여자: 여기요 이쪽에 있는 머리핀은 얼마예요?

(중략)

점원: 둘 다 하세요. 다 잘 어울려요.

여자: 언니, 두 개 모두 살 테니까 14000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점원: 그렇게 싸게 드리면 우리도 남는 게 없어요. 1000원만 깎아 드릴게요.

(수정방안 2)

여자: 여기요 이쪽에 있는 머리핀은 얼마예요?

(중략)

점원: 둘 다 하세요. 다 잘 어울려요.

여자: 언니, 두 개 모두 살 테니까 14000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점원: 사장님, 여기 두 개 14000원에 드릴 수 있나요?사장: 학생, 그렇게 싸게 드리면 우리도 남는 게 없어요. 1000원만 깎아 드릴게요.

2) 새로운 담화자료의 보충

앞에서 교재 분석에서 언급한 보충해야 할 호칭어의 종류와 해당 교재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다.

	보충해야 할 호칭어의 종류	해당 교재
1	'저기요', '여기요' 등 감탄사형 호칭어	초급
2	'여보세요', '이봐요', '여보게' 등 감탄사형 호칭어	중·고급
3	'철호 아빠', '철호 엄마'와 같은 호칭어의 종자 명제적 용법	중·고급
4	'언니', '오빠', '형', '누나(누님)', '어머니(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족호칭어를 사회호칭어로 사용하는 용법	중급
5	서비스 장소에서 쓰이는 '이모(이모야)'나 '경비 할아버지' 등 '직업 명칭+친족어'형 호칭어	고급
6	젊은 층 애인 사이에 많이 쓰이는 '자기' 등 대명사 호칭어	중급
7	'자네'와 여성끼리 쓰이는 '자기' 등 대명사 호칭어	고급
8	'학생', '애(애들아)', '사장님', '사모님' 등 통칭적 호칭어	초·중급
9	'아가씨', '총각', '젊은이', '어르신' 등 통칭적 호칭어	중·고급
10	'분당 어머니', '수원 댁' 같은 지역 명제적 용법	고급
11	인터넷, 병원 등 서비스 장소에서 쓰이는 '이름+님' 형 호칭어	중·고급

위 호칭어들의 제시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화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데 다음 ①~②는 초·중급 교재, ③은 고급 교재에 적합한 예시이다.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호칭어의 선택이 담화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녹음테이프보다 비디오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① 가: 사장님, 이 근처에 원룸 나온 거 있어요?

나: 어디 봅시다. 바로 옆에 원룸이 하나 나와 있네요.

② 여자: 자기야,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남자: 글쎄, 자기 뭐 먹고 싶은데?

③ 철수: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할아버지: 자넨가? 잘 지내나?

2. 호칭어 관련 설명 자료의 구축

앞에서 밝혔듯이 호칭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나 분석을 위한 학문적 이론 토대가 형성되기 위해 한국어 호칭어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며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은 적절한 형식으로 재정비되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유용한 자료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서자료'와 같은 것인데 연구를 거친 문화 학습 자료들을 학습자의 언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를 학습하기 전에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내용의 풍성함을 위해서 한국어 문화 전반에 관한 과외 독서 자료를 마련하는 일은 학습의 효율성, 흥미유발, 동기부여 등을 위해 필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강영, 2006: 33). 또한 연구에 기반한 학습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어로 또는 학습자의 언어로 번역해서 해당 단계의 교재에 게재하여 일종의 읽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녹음을 해서 듣기 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호칭

어 설명 자료의 구축에 관해 예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어법상의 등분으로는 ‘당신’이 높임말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이지만 사용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용법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당신’이 ‘부부끼리의 호칭’이라고는 하나 중년 이하의 부부 사이에서는 오히려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학교의 어학 교육이나 영화의 자막, 텔레비전의 외화 녹음 등에서 영어와 같은 외국어의 2인칭대명사를 번역할 때, 중칭 이상의 정중한 스타일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이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광고 등의 문장에서 불특정의 다수에게 말을 걸 때에도 ‘당신’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당신의 귀한 피부를 위한 화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이처럼 ‘당신’은 ‘너’ 또는 ‘자네’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언쟁이나 시비를 걸 경우에 쓰이거나 친근한 아랫사람에게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제효봉, 2008: 32).

이상의 예시는 ‘당신’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자료는 교사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잠깐 쉽시다”, “tip” 등 소제목을 지어 교재에다가 실어도 된다고 본다. 이외에 언어권별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호칭어 사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자료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어 또는 중국어로 제시가 모두 가능하며 독서 자료로 따로 사용될 수 있고, 교수 시행 시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3. 다매체 활용 관련 자료의 개발

1) 매체 목록과 활용방안

듣기 영역, 특히 고급수준의 듣기 영역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 나은진(2004)에서 매체들의 목록과 활용방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매체	활용방안
청각 매체	녹음 테이프	신문기사 내용의 녹음 일상회화나 주제가 있는 회화의 녹취 토론 수업의 녹취에 의한 평가
	오디오 CD	가사가 있는 노래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 북
	라디오	시사적 칼럼의 녹취, 뉴스의 녹취 음악신청편지나 편지사연의 녹취 교통방송정보, 광고
시청각 매체	영화 비디오 테이프, VCD, DVD 케이블 방 송과 위성방송	대본과 홈페이지가 있는 한국 영화
	TV 녹화 테이프	뉴스, 드라마, 토크쇼, 다큐멘터리, 퀴즈쇼, 광고, 애니 메이션
	인터넷과 컴퓨터	음성채팅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한 비디오와 대본 MP3, 동영상 뮤직비디오 등의 음악과 가사(CD 제작) 인터넷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

이상의 매체와 활용방안들을 호칭어 교육에 국한시켜서 보면 다시 일상 회화를 녹취한 녹음테이프를 사용한 듣기와 영화, 드라마, 광고, TV 토크쇼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 듣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온 호칭어 관련 내용이 너무 불규칙적으로 다른 내용 안에 散在되어 있기에 관련된 내용을 재단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호칭어 교육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전부 보여주는 방식이 역시 실제 외국어 교육 수행에 너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호칭어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녹음테이프나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개

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 중에서 녹음테이프가 화면이 없어서 등장인물의 상호관계와 담화상황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어 초·중급 단계에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앞에서 제시했듯이 기존의 듣기 교재를 수정·보충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고급 단계에 올라갈수록 한국인 삶의 실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개발하여 호칭어의 효율적인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

2) 호칭어 교육 전문 영상자료의 개발

호칭어 교육 전문 영상자료의 개발은 호칭어의 유형별로 개발도 가능하며 호칭어 사용빈도와 나이도에 따라 개발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여 호칭어에 담긴 한국인의 인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각 단원은 녹음된 설명 자료들로 시작하여 유형별 호칭어의 사용이 담긴 장면들이 이어져 간단한 총괄 또는 토론 문제로 끝맺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호칭어들을 사용빈도와 나이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수준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문법 요소들로 담화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자료들은 교육의 목적, 수업의 성격,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에는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호칭어 용법의 전체적인 정리와 한국 호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기유발을 위해 한국문화의 전반적인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학습자의 모어로 번역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1~6급의 각 단계의 듣기 수업에서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학습 내용으로

다뤄도 무방하고, 관련된 주제나 내용이 나올 때 교사가 보충자료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개발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① 등장인물의 최소화; 호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응하기 위한 ② 호칭어 내용의 최대화; 한국어 호칭어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위한 ③ 내용의 다양화; 그리고 담화 상황과 화·청자 간의 관계의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의 변화를 다루기 위한 ④ 내용의 체계화 등이다. 특히 내용의 다양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장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서, 사돈 간의 관계와 호칭 등을 다루는 가정적 장면, 상하관계나 동료관계와 호칭 등을 다루는 사회적 장면, 회의 같은 공적인 장면에서와 모임 같은 사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호칭, 애정 어린 연인끼리 대화하는 장면과 낯선 사람끼리 싸우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호칭 등 실제 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정이 많이 들어서 엄마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과 같이 호칭어 사용의 변화도 체계화된 내용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 영상자료의 듣기 지문에 대해 지면의 제한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시만 제시하겠다.

① (은행 직원과 50대 여성 간의 대화)

은행 직원: 어머님, 뭘 도와 드릴까요?

여자: 응, 통장 하나 만들려고..

②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부르는 장면)

간호사: 김용질 님, 306호 실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환자: 네, 알겠습니다.

③ (자동차 追尾로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

가: 이봐요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조심 좀 하시지?
나: 당신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반말이냐? 당신 이름이 뭐야?
가: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물어?

4. 과제 활동 유형 개발

1) 듣기 전 활동(pre-listening)

메리 언더우드(1999: 50)에서 듣기 전 활동을 앞으로 듣기 될 내용에 관해서 '사전 조정'을 하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앞듣기 활동의 유형들을 제시했다.

- 교사가 배경 정보를 주기
- 학생들이 관련된 책을 읽기
- 학생들이 관련된 그림들을 보기
- 주제/상황을 두고 토론하기
- 쓰기 연습
- 본듣기 활동을 위한 지시들 따르기
- 본활동을 어떻게 끝낼 지 생각하기

이러한 활동 유형들을 호칭어 교육과 연관시켜서 다음 과제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다.

- ① 학습자 언어의 호칭어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호칭어 찾기
학습자의 언어의 호칭어와 한국어 호칭어를 대비시켜 한국어 호칭어의 특성을 이해시킨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당숙' 등의 친족호칭어를 제시하고, 이 호칭어에

해당하는 학습자 언어의 호칭어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한다(전혜영, 2005: 130).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당숙



uncle

② 토론하기

또한 위의 예를 들자면 영어권 학습자에게 왜 해당하는 호칭어가 'uncle'밖에 없냐고 질문을 하여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의 차원에서 이유를 찾아보게 한다.

③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형태 익히기

친족 호칭어나 직함호칭어의 경우, 친족관계도나 직장 내 상하관계도 등 그림을 이용하여 호칭어의 형태적 특성과 사용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습시킨다. 가족사진(회갑잔치나 칠순잔치의 가족사진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가족관계와 이에 따른 호칭어를 설명하게 한다(전혜영, 2005: 131).

④ 쓰기 연습

학습자 자신의 가계도를 그려오게 한 후 거기에 해당하는 호칭어를 쓰게 한다. 또는 친족관계도를 제시하고 빈칸에 맞는 호칭어 넣기를 한다.

2) 듣기 본 활동(while-listening)

본듣기 활동이란 학생들이 교재를 듣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이다.

본듣기 활동은 흥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은 다음 행동에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듣기 활동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동기를 꺾어 버리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듣기와 쓰기를 동시에 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본듣기 활동은 다루기 쉬워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표시하게 하고, 줄을 긋게 하고,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 따위를 요구하는 연습은 좋은 본듣기 활동이 되므로, 그것이 단순한 작업이라고 해서 다루지 않아서는 안 된다(메리 언더우드, 1999: 71-73). 이러한 원리를 호칭어교육과 결합시켜서 다음에서 듣기 본 활동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참/거짓

듣고 내용에 대한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활동인데, 대화를 듣고 청자와 화자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보기>

- ▶ 대화를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입니다.()
- 듣기 지문:
은행 직원: 어머님, 뭘 도와 드리겠습니까?
여 자: 응, 통장 하나 만들려고..

② 선다형 질문들

<보기>

- ▶ 다음 호칭어에 맞는 어미 고르십시오

- (ㄱ) 김 선생님, 그 책 여기 (있어/ 있네/ 있어요/있습니다.)
- (ㄴ) 얘, 이름이 (뭐니?/무엇인가?/뭐예요?/무엇입니까?)
- (ㄷ) 김 군, 여기서 (기다려라/기다리게/기다리십시오)

③ 빙칸 메우기

<보기>

- ▶ 다음 대화를 듣고 빙칸을 채우십시오.
- 가: (선생님),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네)도 열심히 했네. 그런데 앞으로 뭘 하는가?

④ 질문 답하기

<보기>

- ▶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 a. 여자가 머리핀을 얼마 주고 샀어요?
 b. 누가 꺾아주었어요?

(듣기 지문은 앞의 수정방안 2의 내용 참조)

3) 듣기 후 활동(post-listening)

메리 언더우드(1999: 103-111)에서 “뒷듣기 활동은 듣기가 완성된 뒤에 행해지는 특별한 듣기 교재(녹음된 것이든 교사가 말한 것이든 간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어떤 뒷듣기 활동은 앞듣기나 본듣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연장이고, 어떤 것은 단지 듣기 교재 자체와 약간 관련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뒷듣기 활동을 고를 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음 7가지를 제시했다.

- 특정 듣기 교재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언어 공부를 하고 싶은지;
- 듣기 수업 끝에 뒷듣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만약 그런 식으로 시간표가 짜여 있다면);
- 뒷듣기 공부가 말하기, 읽기, 또는 쓰기로 짜여 있는지;
- 뒷듣기 단계를 짹이나 모둠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또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도록 할 것인지;
-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는 뒷듣기 활동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집에서/듣기 센터에서);
- 선택한 활동을 어떻게 재미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더욱 흥미 있게 할 길이 있는지;
- 듣기 교재가 뒷듣기 공부를 이끌어 주는지, 또는 본듣기 단계의 끝에 '의욕 상실'이 되어서 뒷듣기가 용두사미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겹게 되는지.

따라서 듣기 후 활동의 유형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호칭어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예시만 제시하겠다.

① 서열 매겨 보기

신분적 존비관계는 유교적 신분사회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호칭어에 담긴 서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와 같이 호칭어를 섞어놓고, 서열을 매겨보게 한다. 제대로 서열을 매기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통해 호칭어에 서열이 반영되는 특징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혜영, 2005: 130).

교수님	김 교수님	영수 씨	영수 형	김영수 씨	김 교수	김 군	영수야
영수	김영수 군	영수 군	김영수				

② 틀린 내용 고치기

틀린 내용 고치기 활동은 읽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걸리는 특징이 있어서 본듣기 활동보다 뒷듣기 활동으로 하는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존대 호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존대의 종결어미를 호응시키고, 비존대 호칭어를 썼을 경우에는 이에 맞춰 비존대의 종결어미를 써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자주 범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익히도록 한다.

<보기>

- ▶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보세요.
- (ㄱ) 아저씨, 요 근처에 전철역이 어디 있어?
- (ㄴ) 김 교수님, 전화 왔어.

③ 역할놀이

역할 놀이 활동은 듣기에서 배운 말의 일부를 자기의 말하기 능력으로 바꾸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듣기 후 활동으로 자주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호칭어교육에서 낯선 관계,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직장 동료 사이, 선후배 사이 등 관계를 설정해주거나, 학교나 식당, 병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각자 역할에 맞는 호칭어를 써 보게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토론과 작문

토론은 학습자가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해도 되고 학습자가 속한 문화권의 호칭어 사용과 비교하기 함으로써 학습자가 양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호칭어'를 주제로 선정하고 “통신 언어의 호칭어 사용이 일상어의 그것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어떤 독특한 용법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보라는 식으로 1차 토론을 시키고 ‘-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면 “두루 높임 호칭어 ‘님’의 심층 이해”를 중심으로 토론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교사가 적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중국학습자에게 “중국어와 한국어의 친족호칭어를 사회호칭어로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면서 토론을 마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 고급단계 학습자에게 “중국과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 친족호칭어를 사회호칭어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어의 사회호칭어로 쓰는 친족 어휘가 수량이 더 많고 형태변화가 더 풍부하다”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한국어는 친족 어휘를 사회호칭어로 쓰는 빈도가 높고 더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사가 “단순한 어휘의 수량과 형태의 풍부성보다 어휘의 사용빈도와 일반화 정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고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생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험담을 나누게 하고 이를 말하기나 글쓰기로 연계시킬 수도 있다.

V. 마치며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을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먼저 호칭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을 근간으로 ① 이름 호칭어 ② 직함 호칭어 ③

일반 친족 호칭어 ④ 대명사 호칭어 ⑤ 통칭적 호칭어 ⑥ 의사 친족 호칭어 ⑦ 감탄사형 호칭어 ⑧ 종자명제(從子名制) ⑨ 지역명제(地域名制)' 등 9가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호칭어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실제를 교재와 교수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한 결과 기존 교재에서의 호칭어 형태 제시와 관련된 7가지 문제와 다음 3가지 호칭어 교수시의 문제점을 밝혔다.

- 1) 호칭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나 분석을 위한 학문적 이론 토대가 부족하다.
- 2) 호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매체 활용이 부족하다.
- 3) 호칭어 교육을 위한 과제 활동이 부족하다.

그리고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호칭어 교육 방안을 교재와 교육수행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교재에 관해서 기존 교재의 담화자료를 수정하는 방안과 기존 교재에 새로운 담화자료를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급 듣기 교재 개발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호칭어교육 수행 시 필요한 관련 설명자료 구축, 다매체 활용 관련 자료 개발 방안을 논의하며 듣기 전 활동, 듣기 본 활동, 듣기 후 활동 등 과제 활동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기했다. 호칭어의 유형 분류 등에서 논자의 직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호칭어 교수 방안 수립 시, 학습자들의 나이, 언어 간 영향, 언어 환경, 인지, 외국어 적성(foreign language aptitude), 동기, 감정 및 개인별 차이(affect and other sour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등 언어 습득 변인(민현식, 2009: 83-94)들을 포함한 이론적 고려의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족한 부분은 이론적 연구와 교육현장에서의 실천과 검증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0. 4. 30.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다.

참고 문헌

- 강 영(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비교한국학』 14권 2호, 국
제비교한국학회, pp.31-58.
- 고경숙(2008), 「문화 간 의사소통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사의 역할」, 『언어와
문화』 4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20.
- 고류양(2007), 『한·중 호칭어의 대조 연구』, 박이정.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
구원.
- 김성철(2005), 「종자명제, 지역명제, 직위명제: 보조 친족명칭과 개인의 인식법」,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127-147.
- 나은진(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고급과정에서의 듣기-다매체 활용
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2집, 이화어문학회, pp.139-163.
- 도은진(2000), 「친족명칭의 일·한 비교연구」, 『語文學研究』 10, 상명대학교 어
문학연구소, pp.19-22.
- 문무영(1982), 「國語 自稱辭·對稱辭에 대한 一研究」,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민현식(2009), 「언어 습득 및 문화 관련 이론의 동향」, 『국어교육연구』 제2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83-94.
- 박민신(2008), 「한국어 듣기 평가 텍스트의 진정성 연구-대화형 텍스트의 상호
작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
회, pp.1-20.
- 박정운(2005), 「한국어 호칭어 체계」,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75-93.
- 박정운·채서영(1999), 「2인칭 여성 대명사 자기의 발달과 사용」, 『사회언어학』
7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151-178.
- 왕한석(2005), 「호칭어의 주요 이론과 연구 시작」,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17-48.
- 유송영(1998), 「국어 호칭·지칭어와 청자 대우 어미의 독립성」, 『국어학』 32
집, 국어학회, pp.171-200.

- 이광규(1992), 『家族과 親族』, 一潮閣.
- 이윤진(2006),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7권 1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pp.287-306.
- 이정복(2005), 「인터넷 통신 언어 호칭어의 특성」,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287-321.
- 전혜영(2005),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Korean 연구와 교육』 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pp.121-135.
- 제효봉(2007), 「漢韓親屬稱謂汎化使用的對比分析」, 『東方學術論壇』 3期, 한국학술정보, pp.26-32.
- _____ (2008a), 『韓國語語言教學研究』, 北京郵電大學出版社.
- _____ (2008b), 「화용론적 측면에서 본 중한 2인칭대명사 대비분석」, 『중국조선 어문』 155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28-34.
- 조수진(2007), 「한국어 말하기 교수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항록(2004),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권 2호,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pp.193-210.
- Mary Underwood(1993), *Teaching Listen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Inc, 입말교육연구모임 역(1999), 『듣기교육』, 나라말.

■ 국문초록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제효봉

이 논문은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을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먼저 호칭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을 근간으로 ① 이름 호칭어 ② 직함 호칭어 ③ 일반 친족 호칭어 ④ 대명사 호칭어 ⑤ 통칭적 호칭어 ⑥ 의사 친족 호칭어 ⑦ 감탄 사형 호칭어 ⑧ 종자명제 ⑨ 지역명제 등 9가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호칭어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실제를 교재와 교수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한 결과 기존 교재에서의 호칭어 형태 제시와 관련된 7가지 문제와 다음 3가지 호칭어 교수시의 문제점을 밝혔다.

1) 호칭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나 분석을 위한 학문적 이론 토대가 부족하다.

2) 호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매체 활용이 부족하다.

3) 호칭어 교육을 위한 과제 활동이 부족하다.

그리고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호칭어 교육 방안을 교재와 교육수행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교재에 관해서 기존 교재의 담화자료를 수정하는 방안과 기존 교재에 새로운 담화자료를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급 듣기 교재 개발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호칭어교육 수행 시 필요한 관련 설명 자료 구축, 다매체 활용 관련 자료 개발 방안을 논의하며 듣기 전 활동, 듣기 본 활동, 듣기 후 활동 등 과제 활동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기했다.

[주제어]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듣기 교육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Terms of Address
as a Second Language

— With an emphasis on listening education

Qi, Xiaofeng

This study has discussed educational measures of Korean terms of address for foreigners with an emphasis on listening education. Firstly, it includes the concept of Korean terms of address, classifying types of terms, such as name term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itle terms, general kinship terms, pronoun terms, common terms, fictive kinship terms, exclamatory terms, teknonymy, geonymy, etc. based on types of Korean terms which were classified by several scholars.

Secondly, it is analyzed that the practice of educating Korean terms of address is divided into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seven problems related with presenting terms in existing teaching materials and following three problems in teaching terms. 1) It lacks an academical theoretical basis enough to explain or analyze terms of address. 2) It lacks multimedia use to aim at teaching them. 3) It lacks tasks for educating them.

Thirdly, it deals with educational measures of terms of address from two aspects, both teaching material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nd suggesting measures of not only modifying existing discourse materials but supplementing new ones, the need of developing advanced listening education is mentioned. Finally, it is proposed that there are concrete examples of tasks like

pre-listening, while-listening, post-listening, discussing measures of developing multimedia use and constructing explanation materials in performing terms of address.

[Key words] Korean terms of address, educational measures, listening education